

##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근 신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유래하며, 본래의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 간단히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이름은 구약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 많이 지어 부르던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다(마태오 1,21 ; 루가 2,21 참조).

### I.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분

#### 1. 이스라엘 백성(구약)을 통해 준비된 분

하느님께서 첫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뒤에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창세 3,14-15). 이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예언자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약속을 확인하셨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온갖 민족적 비운을 겪으면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지배권을 둘러싼 소용돌이 속에서도 늘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언젠가는 보내주시리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다윗 임금과 맺은 계약(2사무 7,14 참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다윗 시대보다 더한 영광과 번영을 가져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나아가 이 지상에 강력한 힘을 지닌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sup>1)</sup> 이와 같은 확신과 희망에 찬 이스라엘은 고통과 박해

#### 1) 예수님 시대의 사회·정치적 상황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일찍부터 활발한 정복사업을 펼치던 로마는 명장 폼페이우스의 지휘 아래 BC 63년에 팔레스티나를 정복하였다.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대웅 세력인 안토니우스 일파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면서 제정(帝政) 로마 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아우구스토)로 바꿨다.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헤로데를 명목상의 왕으로 삼아 팔레스티나를 통치하게 하였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였고(루가 2,1 참조) 명목상 통치자는 물론 헤로데였다. 헤로데가 죽은 뒤 그의 유서에 따른 영토 분할을 로마인들은 거의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팔레스티나는 헤로데의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하였고,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은 아켈라오에게 상속되었다. 나중에 아켈라오는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고 해서 폐위되고, 로마 총독이 임명되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직접 다스렸다. 이 무렵 예수님은 열 두 살 가량 되었다. 로마로부터 직접 파견된 총독들 중 한 사람인 빌라도(AD 26-36년 재위)는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명령한 장본인이다.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믿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로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요 하느님께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졌다. 자기들은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느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믿었던 그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다. 토지와 재산은 하느님에게만 속하는 것인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곧 하느님께 속하는 것을 황제에게 주는 셈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과세의 목적으로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반대하여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개입으로 폭동과 소요는 진압되었지만, 로마에 항거하는 민족의식은 계기만을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맹렬히 불타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온 유대인의 태도가 한결같지는 않았다. 비록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충실하고 하느님의

를 참아 낼 수 있었고, 온갖 민족적 비운을 당하면서도 끝내 절망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조상들 족보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마태오 1,2-17 ; 루가 3,23-28).

## 2. 말씀이신 분이 참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약속(2사무 7,14 참조)이 실현되었다. 하느님의 말씀<sup>2)</sup>이신 분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리 2,6-7) 하느님께서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요한 3,31-34 참조).

하느님의 말씀이신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다(요한 3,16 참조). 크신 사랑 때문에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골로 1,15)으로써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히브 2,17)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참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 지상 생활 동안 사람으로서 일하시고 생각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행동하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이 인성은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마태 11,29).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사가들은 참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목마르시고(요한 4,7 참조) 허기지셨으며(마르코 11,12 참조), 피곤할 때는 쉬셨다(마태 9,34). 사람들 특히 헐벗고 굶주린 이들과 죄인들의 초대에도 기꺼이 참석하시어, 그들과 먹고 마시며 이야기 나누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마태오 11,19)이라고까지 말하며 비

---

왕권이 완전하게 행사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 적응하던 그들의 생활상은 여러 형태였다.

스스로 성별(聖別)된 거룩한 자로 자처하는 이들로, 충실한 율법 준수로 이스라엘 자체 내의 개혁을 꾀하고자 주장하는 바리사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율법 준수가 곧 생명을 얻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완벽을 추구하며 사회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막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가올 새 시대를 예비하는 자들로서 '빛의 아들'로 곧 옛세네 파이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오염된 곳이었고, 사제들도 썩어빠진 전통이나 제도를 고집하던 형식주의자로 보였다. 다른 부류로는 로마와 결탁하여 현상 유지의 힘쓰는 편의주의자들도 사두가이파가 있었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며, 믿음과 예식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라면 모두 배척했다. 율법을 해석하고 대중의 선생 노릇을 하던 자들도 있었으니 율법 학자들도 있다. 실력으로 로마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열렬한 독립운동가인 열성파도 있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한 이들은 공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분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나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은, 굶주림이나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지상의 정치·사회적·개인적 상황이나 요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화해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실 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2) 희랍 사람들은 말씀(로고스)을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물을 연결시켜 주는 중재자로 생각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한 말씀에 대한 사상을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이 되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뜻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여겼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방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나 당신 마음을 개방하시어(요한 1,17 참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로 삼기도 하셨다. 희망을 걸고 찾아온 나병환자(마르코 1,41 참조)와 가르침이 목마른 사람들(마르코 6,34 참조)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우셨으며(요한 11,35 참조), 죄인에게 용기와 희망(요한 8,11 참조)을 주셨다.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알고 계시는(요한 6,21 참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 주시듯(마르코 9,36 참조) 언제나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거나(마르 3,5참조) 현세적인 것에만 욕심내는 이들에게는(마태오 21,12 ; 루가 12,14 참조), 신앙의 결단(마르코 10,21 ; 루가 14,30 참조)과 사랑(요한 13,34 참조)을 요구하셨다.

### 3.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눈이 신앙으로 점차 열려가고 있음을 전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한다(요한 20,28 ; 히브 1,8 ; 디모 2,13 등).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셨다고 전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생기 찬 신앙을 갖고서, 그분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였다(요한 20,31 참조).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비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셨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요한 14,11). 사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이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요한 10,30). 그러나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은 한 위격이 아니시나,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똑같은 본성을 지니셨다. 그러므로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해야 한다. 곧 하느님이신 성부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아버지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이 되신다(요한 1,14).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 운다. 그것은 하느님이 사람에게 당신 의 은총을 주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하느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히브 1,1).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따금 사람들이 은총으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지만(2고린 6,17), 그리스도 만이 바로 참 하느님의 아들이시다(필립 2,6-11 참조).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神性)을 완전히 소유하고 계신 참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 희망의 바탕이 되며,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마땅히 받으셔야 한다(요한 5,23 : 14,1 ; 마태 10,37 ; 2베드 3,18 등).

## II.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에 관한 정직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였다." (계시 19)라고 믿는 것이다.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하였기에, "모든 일이 참되다는 것을"(루카 1.2.4) 교회는 전하고 있다.

### 1.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복음 선포 활동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2)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다. 이는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회개의 외적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자 요한의 활동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도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요한 1,1-34 참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자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마태 3,14)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말렸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3,15 참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있는 분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언한다(요한 1,29-34).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자 하느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라는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다.

### 2. 광야에서의 유혹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의 인도로 사막에서 40일간 밤낮으로 단식하셨다(마태 4,1-11 참조). 광야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무의미하고 무력해지는 곳으로, 오직 하느님만 의지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단식과 기도를 끝내시자, 악마는 지치신 예수님을 세 차례나 유혹하였다(마태 4,1-11 ; 마르 1,12-13 ; 루카 4,1-13 참조).<sup>3)</sup>

예수님께서 그 뒤로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항상 유혹을 받으셨다. 즉, 로마 지배하에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였다. 특히 지도자들이 기적과 표징을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다. 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까지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혹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 유혹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깊이 있게 자신이 평생 하느님의 계획을 완수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3) 첫 번째 유혹 : 굶주림에서 오는 유혹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온갖 유혹을 뜻한다.

두 번째 유혹 : 권력과 금력에 대한 야심에서 오는 유혹이다.

세 번째 유혹 :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하느님께 대한 반역의 유혹이다.

### 3.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카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고(요한 2,1-11 참조), 자연 현상을 다스리심으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셨다(마태 8,23-27 참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낮게 하시고(마태 8,14-15 참조), 나병환자를 고쳐주셨으며(루카 17,12 참조), 하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시고(마태 8,14-15 참조), 나병환자를 고쳐주시는(루카 17,12 참조) 등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병자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긴급한 요청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과 신기한 일'(요한 4,48 참조)에만 흥미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현존과 자비에 대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마르 1,44)는 엄한 함구령을 내리시곤 하셨다. 이 밖에도 그분이 행하신 기적 중에는 악마 추방이 있는데, 이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느님의 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 4.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담긴 가르침

군중이 예수님께 자석처럼 끌린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설교 말씀 때문이다. 예수님의 설교는 단순하고 동시에 깊이가 있고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그분의 비유들은 대부분 생활 주변에서 나온 것들로, 그 내용은 하느님의 나라, 인간사, 율법 등에 관한 것으로 군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 1)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권력에 의한 통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주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자비의 나라이다. 또 겨자씨의 비유에서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성장하여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사랑의 나라(마르 4,30-32)이다.

#### 2)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와 관대하심과 사랑을 주제로 삼는다. 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자비(루카 15,11-32 참조)는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 3)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 참조)와 무자비한 종의 비유(마태 18,23-35 참조)를 들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다. 그러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곧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로써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 다음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마태 18,35 참조).

## 5.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보다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활 그 자체이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의 삶은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에 있다.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셨다.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죄인들까지도 감싸셨으며, 때로는 그들의 손님이 되시기도 하셨다(루카 19,5-6 참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에 이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다(요한 13,15 참조).

## 6.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설교 말씀과 기적 그리고 삶을 통해서, 당신의 초대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모임을 준비하셨다. 곧 교회이다. 교회란 인류의 역사 안에 나타난 하느님 구원의 표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마태 10,1-4 참조), 그리고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시고자, 당신의 모든 활동에 동행하게 하시어 교육하시었다. 마침내 베드로를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마태 16,18~19 참조). 그리고는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선포될 것이며(마태 28,19-20 참조), 그들 안에 현존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 7. 예수님의 호칭

### 1) 그리스도<sup>4)</sup>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우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분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1고린 12,3 ; 필립 2,11 ; 로마 10,9),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1요한 4,2 ; 사도 2,36 참조)라고 기쁨의 환호를 울리며 신앙을 고백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다.

### 2) 하느님의 외아들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2사무 7,14 ; 시편 2,7 ; 89,27-28 ; 110,3 참조). 이스라엘 의인을 그렇게 불렀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마르 14,36 참조) '아들'로 자처하셨으며(마르 12,6 ; 13, 32 ; 마태 11,27 ; 루카 10,22 참조),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셨다.

---

4)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왕인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칭호. '기름을 발라 축성된 임금, 대제관'이란 뜻을 지닌다(천주교 용어 자료집).

### 3) 주님

모세에게 계시하신, 감히 부를 수조차 없는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를 구약성경에서는 '주님'으로 부르게 된다.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sup>5)</sup>

### 4)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부른 호칭이다(마르 15,2 이하).

### 5) 예언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종말에 재림하리라고 대망하던 예언자 중의 한 분으로 자처하지 않으셨다.

### 6)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자주 나오는데(마태 5,11 ; 10,32 루카 12,8-9 ; 루카 6,22 참조), 이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자 스스로 죄를 사할 권한(마르 2,10.28 참조)과 안식일 계명을 폐지할 권한이 있으시다. 사람의 아들은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시다(마르 13,26 ; 14,62 참조).

## 교회는 답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다. 하느님께서 모세와 그 후계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끌어 오신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심으로써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원계획을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하시려고 당신의 본성과 같으신 '성자'(聖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시므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영원한 말씀이요 성부의 실체적 모습이신 성부의 외아들께서 강생하셨다. 그분은 신성을 잃지 않으면서 인성을 취하셨다(479항).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적 위격의 단일성 안에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다(480항).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연속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기적, 행동거지, 기도, 사람들을 위하시는 사랑,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각별한 애정,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전적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세,

---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455항

그분의 부활, 이 모두가 당신 말씀의 실현이었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561항)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분을 닮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동화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마침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562항)

하늘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에서 개시되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다.” 교회는 이 나라의 싹이며 시작이다.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 맡겨졌다(567항).